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는 매일신보 사장 시절 최남선, 이광수, 진학문, 심우섭 등과 같은 유학생 출신 '신지식인층'을 발탁, 등용해서 지면을 쇄신하고 지방기사를 늘리는 등 다각적인 '경영혁신'을 통해서 매일신보의 판매부수를 늘릴 수 있었다.[1] 3.1운동 이후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조선총독의 개인 고문으로 취임한 아베는 조선인과 통치권력의 메신저·중개자로서 '친일파'로부터 사회주의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조선인과 접촉했고, 서한을 통해 사이토 총독과 조선인을 회유하고 분열시키기 위한 은밀하고 내밀한 대화를 지속해갔다. 따라서 이들이 주고받은 서한에는 언론정책, 민족운동에 대한 동향 및 회유·분열정책, 재일유학생에 대한 원조 및 동향, 중앙정계의 동향 등 조선인과 조선사회의 다양한 고급 정보와 식민지조선의 최고통치자와 그 브레인의 조선인, 조선사회에 대한 인식과 통치관을 담고 있다.

1. 1919. 8. 13 사이토 앞 아베 서한

이번 취임은 국가를 위해 경하 드립니다. 소생은 다소 조선과의 인연이 있어 더욱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서류를 보내드린 것은 조선인의 거리낌 없는 이번 소요에 대한 (소회)입니다. 참고도 되고 앞으로의 시정상에도 얼마간의 補益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선은 의외로 이해되지 않고 지금 조선쌀을 下等의 외국쌀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많다는 것이 그 일부를 점칠 수 있습니다. 실례지만 이 점에 유의해 주시다면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의 조선관을 듣지 마시고 조선인에게 직접 청취해서 그 진상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인으로부터 각종의 조선관을 듣고 이것으로 미리 가슴속에 하나의 상상을 그리고 이것으로 조선을 접하면 이것이 조선인에 대한 이해를 그릇치는 第一步입니다. 조금 주제넘는 말이지만, 각하가 부임하실 때에 조선인에 대한 일대 선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번 국사범죄인에 대한 恩赦입니다. 이것은 인심완화를 위한 第一步로 오히려 조선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요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각종의 자극을 주어 도발시킨 사람들의 前身을 고려하면 그 소식 일반이 예측됩니다. 관용으로 이들을 대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부임하신 후에 음모사건(105인사건)의 거두인 윤치호의 숨기지 않는 고백을 들으시면 수긍하실 것입니다. 제갈공명의 七縱七擒의 英斷을 이 때 특히 열망합니다. 이 일을 영단하시면 조선통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일본인의 조선관의 無用論을 이야기하면서 저도 또 쓸데없는 말을 진언드립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2. 1921년 12월 26일자 아베 앞 최남선 서한(『阿部充家関係文書』190)

혹한의 때 선생님과 가족 분들의 만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난번에 경성을 출발하실 때 (제가) 아버지를 동반해서 역까지 갔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정각보다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그 후 즉시 철원으로 가서 1개월 정도 烟露의 생활을 보내고 특히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서적 덕분에 시대의 추세도 거의 알게 되었습니다. 진군(진학문-필자 주)으로부터 도쿄로 가신 후에도 여러모로 배려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잡지는 진력해 주신 효과가 조만간에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선생님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 최린 군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출감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특히 당사자들도 선생님께 매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너무 격조해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뭔가 한꺼번에 보고 드리려고

1) 이에 대해서는 이형식, 「경성일보·매일신보 사장 시절의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 『사총』 82, 2016를 참조 할 것.

해 그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만, 부디 언짢게 생각하시지 말고 너그럽게 양해해 주십시오. 진군은 돌아온 후에 다방면으로 분주해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자세한 편지를 드려야 한다고 매번 말하고 있으니 조만간에 보고할 것입니다. 이광수 군도 변함없이 건재하고 건필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잡지는 『東明』으로 출원했습니다만, 원래 인기작가(人気商売)인 탓에 이군(이광수-필자 주)은 어느 시기까지는 이름을 올리지 않고 진군, 홍군(홍명희-필자 주)과 함께 저 세 사람의 명의로 발표할 생각이라는 것은 전부터 선생님께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편집 및 기사 등은 물론 이군의 손을 많이 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생은 예정대로 하루라도 빨리 학구생활에 들어가고 싶어 종래 하던 일을 서둘러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호(徳富蘇峰) 선생님께도 (소식) 잘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보고 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3. 1922년 5월 10일자 아베 앞 진학문 서한

편지 왕래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그 후에 노인장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쭙습니다. 소생은 선생님 덕택에 신체만큼은 건강합니다. 다만 여전히 돈 부족(金欠病)으로 극도로 쇠약해져 있습니다. 아아!

최군이 건강한 것도 선생님 덕택입니다. 新文館 확장의 건은 그다지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家屋의 사정도 있어서 당분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잡지는 출원한 이후 벌써 반년 동안이나 검열한다면서 차일 피일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혀 진행되지 않아 최군과 저도 조금은 지쳐버려서 마음이 해이해졌습니다. 신문을 보니 도쿄의 정치 상황(政雲)도 잠깐은 안정되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일도 얼마간 한가해지실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미노베(조선은행 총재 美濃部達吉, 필자 주) 선생은 언제쯤 조선에 돌아오십니까? 소생은 실제 생활 문제로 조금 초조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5월 10일. 진학문이 아베 선생님께.

4. 1922.5.12. 아베 앞 황신덕 서한

와세다 노트

(앞부분은 짤림) 선생님. 대구에 있는 언니(황애덕)는 아직 가출옥 전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어젯밤에 이미 어머니의 곁에 있다는 편지를 받아서 혹시 이것이 꿈이 아닐까
의심하였습니다. 정말로 어젯밤 2시까지도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오늘은 두통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살펴주신 덕분에 정말로 기쁩니다. 집에 계시는 어머니는 어찌나 기뻐하시는지
저도 그것으로부터 안심을 해서 세상의 끝까지도 자유롭게, 어떤 걱정도 없이 돌아다닐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혹독한 일만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정말 기쁜 일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쁜 일은 세상에 있었던 일 중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태어난 이후에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의 덕택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훌륭하게 된다면 저 황신덕의 전기에 빨간 선을 긋겠습니다. 선생님, 어쩐지
너무 기뻐서 자만심이 자주 생깁니다. 오텐바(おてんば) 같은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진은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5월 12일. 선생님의
자식인 황신덕이

5. 1922년 5월 29일자 사이토 앞 아베 서한

일전에 정무총감을 한번 찾아갔습니다만, 방문객들이 붐벼서 현관에서 잠깐 인사를 드렸을 뿐 이야기할 기회를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모리야(守屋) 비서관과 면회하여 최남선(崔南善)의 잡지 허가를 듣고 안심했습니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학문의 생활상의 안정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생의 생각에 따르면 최가 잡지를 발행하는 것은 일본의 건전한 출판물을 매우 평이한 조선어로 번역해서 소책자로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파는 출판업을 일으켜, 이것으로 조선 사상계의 악화를 구원하는 동시에 진학문, 이광수 등과 같은 이들의 생활비의 출처가 된다면 매번 말씀드린 강희자전의 지혜를 잇는 실로 일거양득의 방책입니다. 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도쿄 학생계의 분위기를 관찰해 보건대 최남선도 한명의 낡은 인물이라고 배척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도 이 추세와 싸울 수밖에 없어 유생(儒生)과 학생 사이에 낀 일개 세력권을 만들고 있어 그들 각자를 논전(論戰)하게 함으로써 사상악화를 견제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민중운동 세력을 교묘히 이용하여 당국자가 스스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민중운동 세력을 이용하는 것이 정치가의 妙諦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 앞에 설법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인사를 겸해 말씀을 드립니다.

6. 1922년 6월 23일자 사이토 앞 아베 서한

편안하게 돌아오셔서 감축 드립니다. 출발하실 때 배웅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래 정무총감의 교체 등 내외로 바쁘신 일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적임자를 얻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총감께도 편지 한통을 보내 드렸습니다. 동국통감(東國通鑑)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책 전체의 외형도 좋고 표지, 종이 선택 등 모두 잘 완성되어 좋은 기념이 될 것 같습니다. 최남선에게도 보여주었는데 그는 역시 그 방면에 통달한 사람이라 교토에 이런 목판이 있다고 유래를 알고 매우 칭찬했습니다. 요전에 말씀을 드렸던 상해에 있는 조선인들의 적화 활동에 관한 적당한 소식통을 찾았습니다. 가고시마(鹿児島) 출신으로 사카이 도시히코(堺枯川)의 비서였던 사람이 소생을 의지하여 신문사에 일자리를 구하러 왔습니다만, 사카이와의 관계를 끊지 말도록 일러두었습니다. 실로 솔직하고 사랑스러운 청년으로 그 패거리들 특유의 난폭한 사람도 아니고 인격을 추락시키지 않은 정도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있으시면 제 밑에 두거나 우자와(鵜澤)씨에게 보고하게 한다면 다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습니다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 등을 매우 명백하게 대답합니다. 50엔만 준다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최남선의 건은 조선에 돌아간 뒤에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에게 간접적으로 생활방도를 제공하는 것은 김성수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6월 23일. 아베생. 사이토 각하께

7. 1923년 1월 16일자 아베 앞 최남선 서한

문기증중(文祺增重) 집안에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소생은 변함없이 변변히 하는 일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친절한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성에 체류하실 때의 친절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의 상황은 점점 궁핍을 더해가 한치 앞도 못 보는 어둠이라는 것은 꼭 오늘날의 조선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조(思潮)가 날마다 험악하게 흘러가는 형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멈출 조짐을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의 경향이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 위정자들은 어떠한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실의 은폐, 사상의 통제(錮禁), 언론의 구속을 능사라고 보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현재의 상태로써 밀고 나간다면 어쩌면 예상보다도 일찍 사실의 일대교훈과 조우하지는 않을까 하고 몰래 걱정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비상시에 있으면서 비상한 각오와 그것에 상응하는 대책이 없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의 중심은 정치로부터 이미 경제, 아니 당면한 생활문제로 차차 옮겨갔던 만큼 내재하는 위험성과 표현상의 위력의 정도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조세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경제적 지지력은 날마다 쇠약해져가고, 게다가 유일하게 믿고 있는 쌀 가격도 전에 없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조선인이라도 어떤 종류의 진지한 궁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생이 적절한 책략을 세우지 못하고 자신에게 절박한 문제를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다소의 청화제(清和剤)를 투입하기 위해 계획했던 신문도 자금 문제보다도 오히려 당국의 몰이해 때문에 어쩌면 현실불능으로 끝나지는 않을까 추측됩니다. 보이는 것 모두가 차갑게 말라가는 국면의 일대 전개를 기대하고 바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리(森)씨 앞으로 운곡집(雲谷集)의 일부를 우송을 해 두었습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이달 말경에 자택(高軒)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우선은 답장하느라 예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1월 16일 최남선.
인쇄소 불하는 가까운 때에 실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변함없이 귀족 및 직업적 이권가들에 의해서 농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기인 등은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8. 1923년 4월 22일자 아베 앞 사이토 서한

지난 17일자 편지 잘 받았습니다.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씨(최남선 필자주)가 상경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보내주신 편지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작년 비행장에서 귀하의 소개로 처음 (최남선을) 면회한 이외에 어떤 교섭도 없었습니다만, (그가) 조선인 가운데 유식자의 한사람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조선의 國利民福가 무엇인지를 양해한다면 뭔가 불평불만이 있더라도 우려할 필요가 없지만, 어디까지나 반항하기 위한 불평불만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들은 바에 따르면 매우 무리한 算定으로 잡지 경영을 한 결과 정체상태에 빠졌는데, 본인은 장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까? 다소 추종자도 있다고 들었는데 넌지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안에 준동하는 불령자의 행동은 각각 수배도 해놓아 놀랄 정도는 아닙니다만, 일본 및 조선의 신문이 침소봉대하여 크게 보도하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소 당국자의 자화자찬도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소 선동적인 기사를 삼가지 않으면 그 해는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중자애하시길 바랍니다.

9. 1923년 5월 2일자 사이토 앞 아베 서한

보내주신 편지를 읽었습니다. 최남선에 관한 교시는 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도 특별히 야심 등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의 주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나온 것입니다. 저번 편지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심사도 자못 동정할 수 있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생의 생각으로는 조선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차라리 허가를 해주시는 것이 득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동아일보의 전횡을 억제해서 언론의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 모든 과격한 사상에 대한 견제력으로 최린과 다른 이들을 중심세력으로 하는 하나의 기관을 만들게 하는 일 등 이용책은 많이 있습니다. 저번 편지에서 말씀 드렸던 귀족원 일행의 시찰과 신문협회대회 등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것도 이

미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 생각은 말씀드리지 않고 아무쪼록 그들로 하여금 호감을 가지게 해서 조선 문제 해결에 좋은 자료로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김준연에 대한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박석윤한테 찾아뵈라고 서신을 보내 두었으니 자세한 사정은 그 사람으로부터 청취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월 2일 아베생 사이토 각하
송 여사의 일은 여러모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 1924년 3월 10일자 사이토 앞 아베 서한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이전부터 피력한 학생 지도의 건을 승인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미력하게나마 힘을 다해 知遇에 보답하겠습니다. 예산은 주머니 사정도 있으실 테니 지정하신 금액에 맞게 제반 계획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계획은 앞으로 학교를 나오는 졸업생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제일의 要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 및 일본에 있는 조선과 관계있는 諸 회사의 양해를 얻어 졸업생 채용을 철저히 하도록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조선으로 건너가 미리 이 방면의 사람들을 직접 상대해 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황이 괜찮으시다면 이달 하순 혹은 다음 달 상순경에 조선에 출장 갔으면 합니다. 만약 정무총감이 그 사이에 도쿄로 오신다면 當地(도쿄)에서 총감과 협의하여 각 방면에 의뢰를 부탁해도 좋을 것입니다. 관계회사 중역은 대개 당지에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되도록 각 회사의 인사를 맡고 있는 간부와 직접 담판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의 진척에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쪽이든 상황을 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러시아 승인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小策을 부리거나 또한 조선 문제에 파동을 초래할 것 같은 경향이 보입니다. 언젠가 언급하셨던 야마카미 마사요시(山上正義)라는 자에게 저쪽의 사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 두었고,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吉田 아무개와 만나게 되면 자세히 가르쳐주라고 했습니다. 여운형(呂運亨) 등 그가 관찰한 것이 착착 사실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건대 제법 쓸 만하여 귀여워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3월 10일 아베生 사이토 총독 각하

추신

진학문(秦學文)이 상경하여 두 세 차례 면회하여 時代日報에 대해 자세히 들었습니다. 어쨌든 5만 엔 현금을 마련하여 必金으로 輪轉機와 그 외 창업비로 충당하였는데, 어렵게 잔금(跡金)을 조달하는 중이라 매우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선경제계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자금조달이 가능했던 것은 최남선의 세력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십분 장래를 경계하고 각하를 뵙고 경위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일러두었습니다.

11. 1924년 8월 20일자 아베 앞 사이토 서한

편지 잘 받았습니다.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조선에 오셨을 때는 뵐 기회를 놓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조선은 특별한 일은 없지만 맑은 날이 계속되어 뒤늦게 심은 벼가 고사되고 야채의 발육이 불량하여 곤혹스럽습니다. 곡물의 감수는 피할 수 없는 불경기에 더해 이 불황은 가을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람들에 관한 두, 세 가지 건은 어느 것도 어려운 문제로 考究 중이라 신중해 연구시키겠습니다. 진학문으로부터 일단의 변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미 시기를 놓쳐서(後の祭り) 어떻게 할 수 없고 당시

성의 없는 거동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400엔 수표를 넣어 두었으니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벼운 병으로 칩거해서 늦어져 죄송합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엔 여학생 2명 8월, 9월 2개월분
200엔 신설 학자금 8월, 9월 2개월분
더위가 좀처럼 가시지 않으니 자애하시길 바랍니다.

12. 1926년 7월 23일자 아베 앞 이광수 서한
답장드리는 것이늦어졌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창호씨는 결코 대통령도 못되고 적화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씨의 경륜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교육과 산업주의로 이것이야말로 조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공산당으로부터 당수가 되어달라고 권유받고 있 는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씨는 교육과 산업, 비폭력을 상대가 主義로 삼지 않는 한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잠시 병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병으로 쇠약해져 하루아침에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 주제에 한심스럽습니다. 7월 23일 이광수.